

## 「농약·비료가격표시제」 개정, 전격 시행

### 전 품목 소비자 실 거래가 표시, 유통단속시 이행여부 점검

□ 동안 이원화돼 있던 농약·비료 가격 표시제가 통합, 지난 5월 29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농약과 비료 유통 단속 시 시판상들이 제대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지 여부도 점검 받는 등 전반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2004년 12월 3일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각각의 업무지침과 요령을 별도로 시행해 왔으나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시판상에서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농약과 비료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도 업무지침과 요령이 다소 틀려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이원화된 업무 지침과 요령을 통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확인서 양식을 명시하는 등 기존의 지침과 요령을 보완,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시행지침」을 새로 마련, 시행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효율적 제도 시행을 위해 농진청이 각 시·도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농약과 비료 유통단속시 가격표시 이행점검도 병행해 실시토록 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판매가격 표시대상 품목은 농약·비료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으로 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거래 가격이다. 제조·수입·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운영하거나 농약·비료 소매점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 결정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 방법은 각 개별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열대에 있는 상품에는 진열 선반 아래에 품명, 규격, 실제 판매가격을 표기하고 창고안에 보관하거나 박스에 들어있는 상품은 농약 가격표에 실제 판매가격을 작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 신임 농해수위 위원장에 권오을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권오을(사진·경북 안동)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제17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의 농해수위 위원장에 3선의 권의원을 임명하는 등 19명의 농해수위 위원을 확정했다.

### 경농, 잎집무늬마름병 전문약 「영그네」 출시



(주)경농이 벼농사에 문제되고 있는 잎집무늬마름병에 예방 및 치료효과가 우수한 신제품 「영그네 유제」를 개발, 본격 공급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영그네 유제」는 예방 및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약



## 농림부,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 추가

### 들깨잎, 쑥갓 등 19개 품목 · 33개 성분

**농**림부는 지난 6월 12일 잔류농약 부적합 비율이 높은 들깨잎에 쓰이는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19개 품목, 33개 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을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에서 적용할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총 39개 품목, 286개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산물은 들깨잎, 인삼, 치커리, 참나물, 취나물 등이며 농업인들은 새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로 판정되면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 전까지 일자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은 국민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하여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371종의 농약성분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MRL이 설정되어 있다.

효지속기간이 길어 경제적이며, 침투이행성이 뛰어나 약제가 처리되지 않은 부위에서도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벼의 유수형성기, 출수기 등 민감한 시기에 살포해도 벼 생육과 결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폭넓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우성이 뛰어나 약제 살포 후 강우에도 안정된 효과를 나타내어 장마기에도 비교적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 신젠타, 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약 「필리아」 출시

(주)신젠타 코리아는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병해인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을 동시 방제 할 수 있는 「필리아 유현탁제」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도열병 전문 약제인 트리졸과 잎집무늬마름병

약제인 프로피코나졸의 합제인 「필리아 유현탁제」는 벼에 침입하여 활동하는 병원균에 대한 탁월한 치료 효과는 물론 효과 지속기간이 길어 예방 효과도 우수하며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을 방제 할 수 있어 살포 횟수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신젠타코리아측은 “유현탁제는 국내에 몇 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제형이고, 수도 살균제로서는 국내 최초 등록 약제” 라면서 “유제 및 액상수화제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침투이행성과 약제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제형”이라고 밝혔다.

## 농진청,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발생과 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으로 인한 농생태계 변화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농업생물부 대회의실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에서 7명의 전문가와 잡초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 논 제초제 저항성 잡초 관리를 위한 정보 획득과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과 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잡초학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보면, Richard K Mann 박사는 “미국의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 현황”에 대해, Chao- Xian Zhang 박사는 “중국의 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 현황”에 대해, 농촌진흥청 박대선 박사는 “한국 논에서



의 설포닐우레아 저항성 잡초의 발생현황”에 대해, Hiroaki Watanabe 박사는 “일본에서의 저항성 잡초현황, 관리 및 분자 생물학적 접근”에 대해, 구석진 박사는 “한국논에서의 설포닐우레아 저항성 잡초에 대한 제초제 개발과 전망”에 대해, Jean-Louis Allard 박사는 “프랑스의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실제적인 관리”에 대해, 김길웅 교수는 “한국의 잡초과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 아리스타, 「친환경농업인 쉼터」 개소식 가져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대표이사 한정길)는 지난 6월 5일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서 「친환경 농업인 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신 정보나 자료를 구하기 힘든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 문을 열게 된 「친환경 농업인 쉼터」는 웰빙 풍조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상담활동과 함께 다양한 환경, 문화적인 활동을 무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며, 개소식에 이어 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홍보를 가졌다.

한편, 이날 「친환경 농업인 쉼터」의 사무실 개소식에는 충주시청 및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 한국작물보호협, 「2006농약혼용정보」 책자 발행

### 6년만에, 적용작물·대상약제 대폭 보완

**농** 약의 올바른 섞어쓰기를 위한 「2006 통합 농약혼용정보」 책자가 6년만에 재 발간돼 농업인들의 약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최근 농약의 올바른 혼용으로 약해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일손 부족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그 동안 농약제조사별로 발간해 오던 각 회사별 혼용가부표를 취합 정리, 적용작물 및 약제를 대폭 보완한 「2006통합농약 혼용정보(국배판,356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의 행정·지도기관 및 시판상, 농협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농약혼용정보 책자는 지난해 10월, 농림부가 농약 섞어쓰기에 있어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의회를 거쳐 통합 농약혼용정보를 작성, 배부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격 이루어진 것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약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업계 관계자, 친환경 대표 농가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했다.

### 영일케미컬, 「개혁방향 모색 위한 특강」 실시



(주)영일케미컬(대표이사 김용구)은 지난 6월 1일 영일 홍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일의 개혁방향 모색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일본 구미아이사

Kosehira 전무는 일본농협 자회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일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를 통해 세계와 일본의 농약시장 현황 및 일본 농협과 구미아이사의 개혁에 대해 강연하고 영일케미컬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농협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구미아이사의 마케팅 전략 등 선진 일본의 농약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등이 이어져 열띤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국내 농업관련 인사로는 박종재 광주 원예조합장이 PE공장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영일케미컬의 사업활성화 방향과 농업인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강조했다. 